

# 문말조사 “呢”<sup>1)</sup>의 의미고찰

李 惠 貞\*

<目 次>

I. 서론	III. “呢”의 의미고찰
II. 기존관점에 대한 再考	1. “呢”의 의미범주
1. 의문기능에 대한 再考	2. 증거성 범주에서 본 “呢”의 어법의미
2. 지속기능에 대한 再考	IV. 결론

## I. 서론

중국어에서 “呢”는 일반적으로 의문문과 평서문에 모두 출현한다. 그러므로 연구초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马建忠이 주장한 양태 개념 “传信”과 “传疑”<sup>2)</sup>를 토대로 의문문에 출현하는 “呢”의 의미기능을 의문어기조사로, 평서문에 출현하는 “呢”를 비의문어기조사로 구분하였다.<sup>3)</sup>

\* 경북대학교 강사

- 1) 본고에서 논의하는 “呢”는 문말에 출현하는 조사 “呢”로만 한정한다.
- 2) 马建忠은 《马氏文通》에서 “어기사”를 전하는 어기에 따라 결단어기를 나타내면 “传信”이고, 의문어기를 나타내면 “传疑”로 구분하였다.
- 3) 대표적인 견해들은 다음과 같다.

吕树湘(1990)은 《中国文法要略》에서 “呢”를 직설어기를 나타내는 “呢”과 의문어기를 나타내는 “呢”로 구분하였고, 丁声树(2002) 등은 《现代汉语语法讲话》에서 “呢”의 의미기능이 각각 진술, 의문, 휴지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赵元任(2005)은 《汉语口语语法》에서 “呢”를 모두 4가지로 구분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문문에서 쓰이는 “呢”, 휴지를 나타내는 “呢”, 부드러운 어기를 가

하지만 胡明扬(1981)은 《北京话的语气助词和叹词(下)》에서 “呢”의 의미는 문장의 어기가 진술이든 의문이든 상관없이 모두 상대방에게 주의를 요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정설로 받아들여지던 “呢”의 의문어기조사 지위를 완전히 부정하였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그의 견해를 받아들여 “呢”의 의미기능을 재정의 하였는데 예를 들면, 邵敬敏(1989)은 평서문에 출현하는 “呢”의 어법의미가 “상기”이며, 의문문에 출현하는 “呢”는 어떤 일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깊이 파헤치는 어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熊仲儒(1999)는 의문문중의 “呢”는 “확신”을 나타낸다고 보았으며, 金立鑫(1996), 张伯江(1997), 刘月华(2001) 등도 “呢”가 의문어기조사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呢”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기종류에 따라 당연히 의문조사와 비의문조사로 구분해야 한다는 관점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고, 그런 논쟁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呢”를 의문조사로 귀속시켜야 할지 여부에 대한 해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좀 더 심층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외에 “呢”가 ‘지속상 표지’라고 주장하는 기존의 관점도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吕树湘과 朱德熙가 평서문에 출현하는 “呢”가 지속상을 나타낸다고 주장한 이래로,<sup>4)</sup> 일부 학습교재나 사전류는 이 견해를 그대로 반영하였고, 실제 학습현장에서도 지속상이 “呢”의 주요기능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로는 “呢”가 지속을 나

진 경고를 나타내는 “呢”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吕树湘(1980)은 80년대 초에 이르러 “呢”의 의미기능을 다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모두 4가지로 재분류하였다.

- ① 의문을 나타내는 “呢”
- ② 사실을 분명히 알리며 약간의 과장어기기를 가지는 “呢”
- ③ 문미에 쓰여 지속의 상태를 나타내는 “呢”
- ④ 문중의 휴지점을 나타내는 “呢”

朱德熙(1982)는 《语法讲义》에서 지속상을 나타내는 “呢”, 의문어기를 나타내는 “呢”, 화자의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는 “呢”로 구분하였다.

타내는 환경에서 자주 출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속상을 나타내는 모든 언어 환경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닐 뿐 아니라 비지속상을 나타내는 명제뒤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출현이 가능했다. 이런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그를 지속상표지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먼저 의문기능과 지속상기능이 정말 “呢”의 고유한 의미기능인지를 재고해 보고, 현대중국어에 병존하고 있는 문말조사들의 조합 층차에 근거해 “呢”의 의미기능이 증거성(evidentiality)범주에 속하는 증거성표지 중 하나임을 밝히는 동시에 증거성 정도를 바탕으로 “呢”의 구체적인 어법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그 본질에 좀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다.

## II. 기존관점에 대한 再考

### 1. 의문기능에 대한 再考

전통어법에서 중국어는 “吗”, “呢”, “吧”, “啊” 등 모두 네 개의 의문어 기조사를 가진다고 하였다. 후에 학자들은 이 중에서 “啊”는 의문어기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를 의문어기조사범주에서 배제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셋 중 “吗”만이 중국어의 전형적인 의문어기조사로 인정하였고 “呢”, “吧”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吗”, “呢”, “吧”, 이 세 개의 조사가 모두 의문어기조사라면 그들은 동일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본적으로 서로 교차되는 특징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일단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吗”, “吧”, “呢”의 주요특징들을 비교함으로써 “呢”의 의문기능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吗”는 통상적으로 평서문과 결합하여 전체 명제의 진실성 여부를 묻는 역할을 한다. 이 때 전체 문장의 의문항은 전적으로 “吗”가 담당하며 이에

대한 대답은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시비(是非)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긍정 혹은 부정형식을 취한다.

현대중국어에서는 의문사를 내포한 특지의문문 뒤에 “吗”가 출현하는 용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의문항은 “吗”가 담당하며, 문장 속에 포함된 의문사는 예(1)-(3)과 같이 의문성질을 상실한 채 “비특정지시(nonspecific)”로 전환된다.

- (1) “想喝点什么吗?  
    뭐 좀 마실래?”
- (2) 你知道刚才来的老太太是谁吗?  
    방금 전에 오신 할머니가 누구신지 아니?”
- (3) “五一想去哪玩了么?  
    노동절 연휴에 어디 가서 놀지 생각했니?”

그러므로 이들의 대답형식도 의문사 “什么”, “谁”, “哪”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想 / 不想, 知道 / 不知道, 没想好 / 想好了 혹은 是的 / 对, 不是 / 不对등과 같이 긍정 혹은 부정형식을 취함으로써 명제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의문어기조사로서 “吗”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스스로 의문항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앞에 놓이는 문장이 평서문이든 의문문이든 상관없이 전체문장은 모두 시비(是非)를 묻는 의문문이 되고 대답형식도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된다.

어법학계에서는 “吧”의 의문기능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문법학적 관점에서 그의 역사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그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 다음은 齐沪扬(2002)이 도출한 “吧”의 연속변이이다.

罢(实词V) > 罢(吧)(陈述语气) > 罢(吧)(祈使语气) > 罢(吧)疑问语气 > 罢(吧)停顿语气 (齐沪扬 2002)<sup>5)</sup>

이 연속변이를 근거해보면, “吧”가 의문어기조사로 쓰이던 단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문법화의 특성상 하나의 단어가 발전·분화하더라도 전단계의 변이들이 바로 도태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분화된 변이들과 공시평면에서 공존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점을 감안하면, 현대중국어에서 “吧”의 의문기능은 “吧”의 변이 중 하나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吧”의 의문기능을 인정하고 그들의 주요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吧”를 이용해 묻고 답하는 담화형식의 용례들이다.

- (4) A: 你们生气了吧? 너희들 화난 거지?  
 B: 没有. 아니.
- (5) A: “有没听过的, 你没听过吧?” 侃姐问我.  
 “들어 본 적 있는 사람 있니? 넌 들어 본 적 없지?” 칸언니가 내게 물었다.  
 B: 没有. 아니요.
- (6) A: 这孩子……没病吧? 이 아이…… 병 없죠?  
 B: 没病, 又健康又可爱. 병 없어요. 건강하고 귀엽죠.

이상의 용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吧”도 기본적으로 평서문 뒤에 출현하여 전체문장을 의문문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5) 齐沪扬(2002)에 따르면, “吧”가 명령어기에서 완곡어기로 허화되면서 반어문에 자주 출현하게 되었다. 반어문 자체가 다시 추측어를 가진 의문문으로 발전하였는데 발전초기에는 추측을 담당하는 성분이 따로 있었지만, 후에 “吧”가 추측어를 전적으로 혼자 담당하게 되었다. 이때 전체문장은 여전히 의문문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한다. 이처럼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볼 때, “吧”의 추측어기는 확실히 의문 형태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오히려 비의문문에 출현하는 추측어기는 후에 발전한 것인데,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는 “吧” 자체가 중성적 의문문을 나타내는 의문어기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식론적으로 볼 때 “吧”가 가지는 추측성은 그 안에 의혹과 확신의 태도가 모두 내포되어 있다. 초창기, 의문 형태에서의 “吧”는 의혹의 태도가 확신의 태도보다 더 많이 반영되었다. 그러다가 후에 의혹보다는 확신이 더 반영되어 있는 추측을 나타내는 언어 환경에 자주 출현하면서 그는 비의문성 추측어를 가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또한 특지의문문에 자주 출현한다.

(7) 那我问你, 最近没听说什么吧?

그럼 내가 물어보자. 최근에 아무것도 못들었지?

(8) 你在这个时候到来, 一定有什么重要的事吧?

네가 이 시간에 오다니, 분명히 무슨 중요한 일이 있지?

(9) “昨夜, 我们道了晚安以后, 你大概没有写什么吧?”她问道。

“어젯밤, 우리가 “잘 자”라고 한 후에, 너는 아마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 거야?” 그녀가 물었다.

이때, 전체문장의 의문항은 여전히 “吧”가 담당하며, 문장 속에 있는 의문사 “什么”는 모두 “비특정지시(nonspecific)”로 전환된다. 이들의 대답형식도 “吗”와 마찬가지로 모두 긍정 혹은 부정형식을 취한다. 단, “吗”보다는 의혹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추측의 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때 상대방의 질문에 동의하는 대답형식이 우위를 점한다.

이상 “吧”의 주요특징들을 상술한 “吗”와 비교해보면 양자사이에는 확실히 교차되는 성질들이 존재한다. 사실, 이 특징들은 단지 “吗”와 “吧”만이 지니는 특징이 아니고 바로 현대중국어의 여러 품사중 하나인 의문어기조사와 기본적인 특징을 개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呢”의 특징들을 다시 이들과 비교해보면 그가 의문어기조사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중국어에서 “呢”는 평서문과 결합하면 의문문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평서문으로 존재한다.

(10) 他睡觉呢。 그는 자요.

(11) 外边下着雨呢。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12) 他还会做诗呢。 그는 시도 지을 수 있어요.

그는 단지 특지의문문, 선택의문문, 정반의문문등 기본적으로 의문사 또

는 의문구조를 가지는 문장과 결합해야만 의문문형식이 된다.

- (13) 我怎么一下想不起了呢? 나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14) 到底是结还是没结呢? 도대체 결혼했니 안했니?  
 (15) 我们去不去呢? 우리는 가니 안가니?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각의 문장 속에 포함된 의문사나 의문구조는 “吗”와 “吧”의 경우처럼 비특정지시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의문항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呢”는 절대로 의문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답도 긍정 혹은 부정형식이 아니라 “怎么”, “结还是没结”, “去不去” 등 각 의문항에 상응하는 대답을 해야 한다. “结还是没结”, “去不去”의 대답형식은 여전히 긍정 혹은 부정인데 이걸 이 의문문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呢”와는 무관하다.

이상의 특징들을 통해, “呢”는 의문어기조사 “吗”와 “吧”와는 어떤 교차점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상반된 특징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의문문에 출현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문어기조사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呢”를 평서문에 출현하는 “呢”와 분리시켜 의문어기조사로 귀속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sup>6)</sup>

실제 용례에서 예(16)-(19)와 같이 “呢”가 “吗”나 “吧” 혹은 (不)是~吗?와 함께 출현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 (16) 你证件都带着呢吗? 너 증명서 다 가지고 있는 거 맞니?

6) 사실, “呢”는 다음과 같이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다.

예) 丁四呢? / 我的靴子呢?

그러나 이들은 모두 문장 중 생략된 요소가 있는 의문문으로 본문에서 논의하는 의문문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화제표지를 담당하는 “呢” (예:我呢, 也有我的道理) 처럼 후에 생긴 용법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의문문형태는 논외로 한다.

- (17) 别着急, 咱这不等雷呢吗? 서두르지 마, 우리는 지금 천둥 기다리고 있지 않니?  
(18) 你还没有手机呢吧? 너 아직 휴대폰 없잖아?  
(19) 你还不知道呢吧? 너 아직 모르잖아?

일반적으로 동일 범주에 속하는 “呢”와 “吗”는 절대로 연용이 될 수 없는데 “呢”는 이상에서 보듯이 양자와 비교적 자유롭게 연용될 수 있다. 이 사실은 “呢”가 “吗”나 “吧”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지 않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방증이다.

## 2. 지속기능에 대한 再考

呂樹湘(1980)과 朱德熙(1982) 등은 의미기능에 따라 “呢”를 복수의 “呢”로 구분하였고, 그 중 하나가 지속상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들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열거한 예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正”, “正在”, “在(那里)”, “着” 등이 포함된 문장이거나 현재형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이다. 중국어에서 “正”, “正在”, “在(那里)”, “着”는 원래 진행, 지속을 나타내는 어법 단위이고, 현재형, 특히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형은 기본적으로 진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통사 환경 속에서 출현하는 “呢”를 보자면, 그 또한 지속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다.

하지만 “呢”의 분포양상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그가 지속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첫째, 아무리 진행(지속)부사 혹은 진행(지속)을 나타내는 조사를 포함하는 통사 환경이라 하더라도 “呢”가 반드시 출현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 (20) 在工地医务室, 吴姗正在给我胳膊上伤口做着清洁处理。  
공사장 의무실에서, 우싼은 때마침 내 팔에 있는 상처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 (21) 李白玲打开电视, 一只残忍的金钱豹正在追逐驯鹿群。  
리바이링이 텔레비전을 켜니, 한 마리의 잔인한 표범이 순록무리를 한창 쫓고 있는 중이었다.
- (22) 次日, 慧芳正在农贸市场买菜, 手抓一把蒜苗和小贩讨价还价。  
이틀 날, 후웨이팡은 한창 농산물 시장에서 채소를 사는데, 손으로 마늘쫑 한 움큼을 쥐고는 상인과 흥정을 하고 있다.
- (23) 那边, 于观正在批评杨重: “大家都在争着向冯先生献媚, 你为什么不去?”  
저쪽에서, 위관이 양쥙을 꾸짖고 있다: “모두가 앞다투어 평선생한테 아부를 떨고 있는데, 너는 왜 안가니?”

상기 예문은 모두 전형적으로 지속상을 나타내는 “正在”가 포함된 용례들이다. 만약 “呢”가 지속상 표지라면 “正在”가 포함된 각 문장의 말미에 모두 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각 문장 말미에 “呢”를 추가시키면 오히려 의미가 어색해진다.

둘째, “呢”는 비지속상을 가진 문장 말미에도 자주 출현한다.

- (24) 我收到你的信, 哭了好几天呢。  
나는 너의 편지를 받고서, 몇 날 며칠 동안 울었어.
- (25) 没事, 就是衣服都扎破了, 人家要赔呢。  
괜찮아. 옷이 다 찢어졌는데, 상대방이 배상해주길 원할 뿐이야.
- (26) 你们看, 她还会眨眼睛呢。  
너희들 봐, 그녀는 눈도 깜빡일 수 있어.
- (27) 他的名字经常登报呢。  
그의 이름은 자주 신문에 실려.

예(24)-(27)에서 “呢”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은 각각 “了”, “要”, “会”, “经常”을 포함하여 지속과는 무관하거나 대립되는 상(相)을 나타낸다.

“呢”는 심지어 예(28)-(30)과 같이 시간성질을 전혀 내포하지 않은 “정도부사+형용사” 구조 뒤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출현이 가능하다.

- (28) 大宝小宝都很可爱呢。  
 큰 애 작은 애 모두 아주 귀여워.
- (29) 第一次参加全运会, 我的心情很紧张呢。  
 처음으로 전국체전에 참가하니, (내 마음이) 아주 긴장되네.
- (30) 他那张和善的面孔可非常安静呢。  
 그의 그 선량한 얼굴은 정말 (아무런 표정 없이) 고요해요.

“呢”가 지속상 표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두 번째 경우와 같이 비지속상을 나타내는 문장과 결합하는 “呢”를 별도로 구분시켜 또 다른 하나의 기능, 즉 양태를 나타내는 표지로 처리하였다.<sup>7)</sup> 이렇게 하면, 두 번째 경우처럼 비지속상을 나타내는 문장과 결합하는 “呢”의 귀속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하지만 첫 번째 경우처럼 지속상 표지인 “呢”가 지속상을 나타내는 문장과 결합할 때 왜 제약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른바 상표지는 허사에 속하는 것으로 단지 어법의미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어법의미는 그가 출현하는 전체 언어 환경을 통해 귀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처럼 지속상을 나타내는 문장에 출현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한, “呢”를 지속상 표지라고 귀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가 지속상 표지가 아니라면 굳이 상술한 바와 같이 “呢”를 지속상과 양태표지로 분리시켜 정의내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呢”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相)을 나타내는 명제와도 제약 없이 다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그는 상(相)과는 무관한 또 다른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중국어의 문말조사는 상기능을 나타내는 조사 외에도 다른 의미기능을 가진 조사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준다.

7) 앞에서 언급한 吕树湘과 朱德熙 이외에도 史金生(2010)도 이 부류에 속하는 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에 따르면, “呢”는 지속을 나타내는 “呢”와 양태를 나타내는 “呢”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语法研究和探索(十五)》:《从持续到申明:传信语气词“呢”的功能及其语法化机制》2010)

### Ⅲ. “呢”의 의미고찰

#### 1. “呢”의 의미범주

朱德熙(1982)는 현대중국어에 존재하는 모든 문말조사가 동일한 의미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미기능에 따라 복수의 범주로 구분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합 층차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세 범주로 분류하였다:

상 표시>의문 혹은 명령(청유) 표시>화자의 태도와 감정표시

후에 李讷(1998) 등은 문말조사 중에서 상기한 범주들 외에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새로운 범주(그들은 양태조사(情态助词)라 명명함)가 존재하며 그들은 통상적으로 상과 의문 혹은 명령을 표시하는 조사 사이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이 두 견해를 종합해서 문말조사의 의미범주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상 표시>양태표시>의문 혹은 명령(청유) 표시>화자의 태도와 감정표시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논의해야 할 점은 “양태”라는 단어사용의 적절성 여부이다. 李讷(1998)등은 문말조사 “的”를 광의적 의미에서의 증거성 표지로 정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양태조사라 명명하였다. 언어학 관점에서 볼 때, 증거성(evidentiality)과 양태(여기서는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을 가리킨다)는 엄연히 다른 의미기능을 가진 개념으로, 먼저 증거성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협의와 광의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협의적 관점에서의 증거성은 주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발화내용에 대한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이고, 광의적 관점에서의 증거성은 발화내용에 대한 화자의 확

신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비해, 양태(인식양태)는 사건발생에 대한 가능성과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과 추측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양자는 반드시 각각 독립된 범주로 인식되어야 하고,<sup>8)</sup> 위 도식에서도 ‘양태’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증거성’을 사용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확립해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 張伯江(1997)도 일찍이 일부 문말조사는 광의적 관점에서의 증거성을 나타내는 문법형식에 속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sup>9)</sup> 이상을 종합하여 현대중국어에 존재하는 문말조사의 의미범주를 재도식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 표시>증거성표시(광의적 관점)>의문 혹은 명령(청유) 표시>화자의 태도와 감정표시

이처럼 증거성표시를 나타내는 조사의 발견은 문말조사의 체계를 보다 정밀하고 완벽하게 정립하는데 관건적인 역할을 했다. 현존하는 문말조사는 모두 이 네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呢”는 과연 어느 범주

8) 증거성을 언어학의 어떤 의미 범주 속에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언어학자 사이에는 여러 견해가 있다. 그 중 증거성을 인식양태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증거성을 인식양태와 별개의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논쟁이 심하다.(송재목, 인식양태와 증거성, 한국어학회, 2009(44): 27-53 참고) 증거성과 인식양태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화자의 확신정도를 나타내는 광의적 관점에서의 증거성 표시가 인식양태의 판단, 추측과 개념상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 사이에는 판단 혹은 추측하는 대상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증거성 표시는 화자가 발화한 내용에 대한 확신정도, 예를 들면 ‘확실히 그러하다’, ‘그럴 것이라 짐작하다’ 등을 나타내는 반면에 인식양태는 사건발생의 가능성, 필연성 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때 증거성은 주어진 명제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는 것이라면 인식양태는 명제 속에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거성과 인식양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

9) 張伯江(1997)은 현대중국어에서 증거성을 나타내는 문법적 형식은 모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주로 삽입어를 활용한다.(예: 眼瞧着, 据说, 听说 등) 둘째, 발화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며, 종종 부사를 활용한다.(예: 显然, 准保 등) 셋째, 발화내용에 대한 확신정도를 나타내며, 문말조사(예: 的, 吧 등)로 표현할 수 있다.

에 속하는가? 일단 II에서 이미 그가 상과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는 아님을 밝혔다. 예(16)-(19)과 같이 의문조사 “吗”, “吧”앞에 출현하기도 하고, 예(31)-(34)와 같이 “着”, “了”, “来着”등 전형적인 상표지 뒤에 출현한다는 사실이 이를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준다.

(31) 他在屋里坐着呢。

그는 집안에 앉아 있어.

(32) 请说, 我这儿听着呢。

말씀하세요. 저 듣고 있어요.

(33) 这本书我妈妈看过, 她也觉得好, 还哭了呢。

이 책 우리 엄마도 본 적 있는데, 그녀도 좋다고 느끼고, 울기까지 했어요.

(34) 今天我媳妇还跟我打架来着呢。

오늘 내 아내는 나와도 싸웠는걸요.

현대중국어에서 명령문에 출현하는 “呢”의 용례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상술한 네 종류의 의미범주 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증거성과 화자의 태도와 감정을 나타내는 조사밖에 없고, “呢”의 의미범주는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 용례를 살펴보면 “呢”는 종종 “啊”와 연용된다. 문말에 출현하는 “哪(呐)”<sup>10)</sup>의 존재가 이 둘의 연용사례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이 때 “啊”는 어기를 가볍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화자의 태도 및 감정을 표시하는 범주에 속하는 문말조사이다. 따라서 그 앞에 놓이는 “呢”는 증거성을 나타내는 조사 중 하나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0) 현대중국어에서는 문말에 두 개의 조사가 연용될 때가 있다. 이 때, 두 번째 조사가 모음(元音)으로 시작되는 단어이면 앞에 놓인 조사와 합쳐져서 하나의 음절로 바뀐다. 哪(呐)는 “呢啊”가 합쳐진 결과이다.

## 2. 증거성 범주에서 본 “呢”의 어법 의미

앞에서 이미 “呢”는 ‘광의적 관점의 증거성표지’라는 의미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밝혔다. 광의적 증거성이란 화자가 주어진 명제에 대해 가지는 확신 정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면 “呢”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법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呢”가 포함된 용례들을 살펴보면 주로 단언에 해당하며 이 때 화자의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呢”이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35) 这人一看就惯会甜言蜜语, 越是这种人才越要提防呢。

이 사람 딱 보니 달콤한 말이 입에 배어 있어. 이런 사람일수록 경계해야 해.

(36) “别开玩笑, 跟你说正经的呢. 你跟过去大不一样。”

농담하지 마, 너에게 진지하게 말하잖아. 너는 옛날과 많이 달라.

(37) 妈妈不信地说：“你还记得挺清呢。”

엄마는 못믿어워 하시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38) 陈主编在一旁：“请说, 我这儿听着呢。”

천편집장은 옆에 있다: “말씀 하세요, 저 듣고 있어요”

상기 예(35)–(38)에 만약 “呢”가 출현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데 그쳤겠지만, “呢”가 출현함으로써 화자의 인식태도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즉 “呢”앞에 놓이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강한 확신이 내포되어있다.

일반적으로 “呢”가 포함된 문장들은 주로 담화형식에 출현하며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胡明扬, 邵敬敏 등 일부 학자들은 “呢”의 역할이 “상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설령 문장 속에 “呢”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상기”의 의미

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즉 ‘상기’는 문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담화화용상의 의미이다.<sup>11)</sup> 따라서 “呢”의 실질적인 의미는 앞에 놓인 명제에 대해 ‘확실히 그러하다’라는 화자의 확고한 신념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러면 의문문에서는 “呢”가 어떻게 강한 확신의 태도를 나타내는가?

(39) 你问谁呢? 너 누구한테 묻니?

(40) 你在干什么呢? 너는 뭘 하고 있는 거니?

(41) 你到哪儿去了呢? 너는 어디에 갔었니?

(42) “你们为什么要这么做呢?” 너는 왜 이렇게 하려고 해?

(43) 明天是你去呢, 还是我去呢? 내일 네가 가니 아니면 내가 가니?

(44) “英国, 您去不去呢?” 영국, 너 가니 안가니?

예(39)-(42)은 의문사가 포함된 특지의문문이고, 예(43)은 선택의문문, 예(44)는 정반의문문이다. 먼저 특지의문문에서 만약 “呢”가 없다면 단순히 “谁”, “什么”, “哪儿”, “为什么”를 묻는 의문문이다. 하지만 문말에 “呢”가 출현하면서 각각의 문장에는 하나의 의미가 추가되는데 바로 화자의 확신이다. 즉 예(39)는 화자가 이미 상대방이 질문을 했다는 사실은 확신

11) “呢”가 상기 외에 과장이나 반박등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예) 这塘里的鱼可大呢!(과장)

阳明山才不会比台北热呢!(반박)

첫 번째 용례에서 과장의 의미는 “呢”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양태부사 “可”의 강조의미가 부각되면서 나타나는 파생의미이다. 두 번째 용례는 상대방의 발화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장면이다. “才”라는 양태부사로 자신의 발화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반박”은 담화화용적 의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지금 학계에서는 이상과 같이 문장속의 어떤 성분이 강조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파생의미나 담화화용상의 의미가 “呢”의 본질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呢”가 나타내는 화자의 강한 확신은 상기, 과장, 반박 등을 나타내는 언어 환경과 잘 어울린다. 그러므로 이런 환경에서 증거서표지 “呢”를 자주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기, 과장, 반박이 “呢”가 나타내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한다. 다만 누구한테 질문했는지 몰라서 “谁”라는 의문사를 이용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예(40)-(42)도 모두 동일한 원리이다. 각각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갔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점에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다만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갔는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몰라서 그에 상응되는 의문사 “什么”, “哪儿”, “为什么”를 이용해 의문을 제기할 따름이다. 예(43)과 (44)도 비록 선택 및 정반의문문이지만 원리는 마찬가지로이다. 전자는 화자가 이미 내일 어디에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다만 상대방이 가는지 내가 가는지 몰라서 선택 의문문형식을 빌려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후자는 화자가 이미 상대방이 영국에 갈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자 정반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질문을 하고 있다. 결국, 의문문에서도 “呢”는 여전히 증거성 표지로 화자의 확신을 나타낸다. 다만, 평서문과 다른 점은 평서문에서 “呢”는 그 앞에 있는 명제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반면에 의문문은 모두 화용적 전제(pragmatic presupposition)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呢”는 바로 이 전제에 대한 화자의 확신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sup>12)</sup> 이상을 종합해봤을 때, “呢”는 문장의 어기에 따라 확신의 대상에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어법의미는 모두 화자의 강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는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증거성 범주에 속하는 조사이고, 증거성 정도가 높기 때문에 확신성 표지(certainty marker)라고 명명할 수 있다.

현대중국어에는 “呢”외에 확신성 표지가 하나 더 존재한다. 바로 문말에 놓이는 조사 “的”이다.(张伯江 1997, 李讷 등 1998)<sup>13)</sup> 증거성 정도의 관

12) 熊仲儒(1999)도 《“呢”在疑问句中的意义》에서 의문문에 출현하는 “呢”는 확신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呢”가 포함된 의문문은 信과 感가 모두 존재한다. 이 때, “信”은 일종의 심리태도이며 “感”은 일종의 인지상황으로 전자는 “呢”와 어경(语境)이 나타나고 후자는 의문형식이 나타난다. 그의 견해는 본고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의문문 속에 있는 “呢”의 어법의미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했을 뿐 평서문에 포함된 “呢”의 귀속문제 및 그들의 의미범주인 증거성범주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점에서 봤을 때, “的”도 “呢”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강한 확신을 나타낸다. 비록 양자가 모두 확신성 표지에 해당하지만 그들은 엄연히 자기만의 고유한 언어 환경을 가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的”는 기발생된 사건의 책임자를 단정하거나 기발생된 사건의 조건, 예를 들면 방식, 목적, 원인, 조건 등을 단정할 때 주로 쓰인다. 다음 용례들을 살펴보자.

(45) 是我叫住她问她一些情况的。→ \*是我叫住她问她一些情况呢。

(46) 是她给你打扮成这样的? → \*是她给你打扮成这样呢?

(47) 我是吃饱了回来的。→ \*我是吃饱了回来呢。

(48) 我们两家是一起坐火车来的。→ \*我们两家是一起坐火车来呢。

좌측의 용례들 중 예(45)과 (46)는 책임자를 단정하는 것이고, 예(47)와 (48)은 조건을 단정하는 것이다. 이 때 각 문장들의 말미에는 “的”만이 출현가능하고, 만약 “呢”로 대체되면 비문이 되고 만다.

13) 문말에 놓이는 “的”의 귀속문제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 구조조사로 보는 견해(朱德熙(1978,1982), 徐静茜(1984), 杨石泉(1997))

② 시태조사로 보는 견해(宋玉柱(1981), 马学良·史有为(1992))

③ 증거성표지로 보는 견해(李讷·安珊笛·张伯江(1998)).

사실, 문말에 놓이는 “的”의 용례를 살펴보면 구조조사로 쓰이는 용례와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는 용례가 모두 나타난다. 이는 문법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른 변이에 속하는 것으로, “문말”(文末)이라는 통사환경아래 구조조사 “的”가 확신을 나타내는 조사로 분화된 것이다.(이혜정. “的”자 구조중에 있는 “的”의 공시문법화 연구. 중국어문학, 2015(70): 267-286 참고) 따라서 본고는 문말에 놓이는 “的”를 확신을 나타내는 증거성 표지라고 주장하는 张伯江(1997)과 李讷(1998)의 견해에 동의한다. 본고가 그를 인식양태조사로 보지 않는 이유는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的”는 “可能”, “肯定”, “应该” 등 다양한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부사 혹은 조동사와 공기제약 없이 결합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的”가 확신을 나타내는 인식양태라면 공기하는 부사나 조동사도 확신을 나타내는 유형이어야만 한다.

① 你可能会受伤的。

② 老人肯定会理解我们的。

③ 这个答案应该是明显的。

반대로 상술한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기발생된 사건이나 혹은 발생중인 사건에 대해 확신을 나타낼 때에는 주로 “呢”가 쓰이며 “的”로 대체하면 예(49)-(51)의 우측용례처럼 비문이 된다.

(49) 我们昨天还提到你呢。→ \*我们昨天还提到你的。

(50) 他们正在吃饭呢。→ \*他们正在吃饭的。

(51) 你看外面下着雨呢。→ \*你看外面下着雨的。

물론, 현대중국어에는 “呢”와 “的” 중 어떤 것이 출현해도 무방한 언어 환경이 있다. 미발생된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이다.

(52) 这东西三百块钱买不下的。↔ 这东西三百块钱买不下呢。

(53) 换了我是不会这样做的。↔ 换了我是不会这样做呢。

예(52)과 (53)중의 “呢”와 “的”는 모두 동일한 문장과 결합되어있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내는 확신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좌측은 비교적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진 확신이고, 우측은 주관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확신이다. 즉 표면적으로 보여 지는 환경은 동일하지만 “的”와 “呢” 중 어떤 조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심층적인 의미는 여전히 차이를 보인다. “的”와 “呢”사이의 이런 차이는 전자가 후자보다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的”가 구조조사에서 문법화 된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的”와 “呢”를 비교할 때 다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이상을 종합해봤을 때, 현대중국어에서는 확신성 표지 “呢”와 “的”가 어느 정도는 상호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면서 ‘확신’이라는 인식범주를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Chafe(1986)가 기존의 협의적 관점에서만 다루던 증거성 범주를 광의적 관점으로까지 확장시킨 이후, 중국어법학계에서도 광의적 정의를 토대로 그동안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문말조사 “的”의 의미범주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문말조사 “的”는 증거성 범주에 속하는 조사로서 화자의 강한 확신 태도를 나타내는 확신성 표지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인식은 현대중국어에 존재하는 문말조사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관건적인 역할을 했다.

본고는 “呢”가 포함된 문장이 통상적으로 단언을 나타낸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또한 증거성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먼저 기존 학자들이 주장한 “呢”의 두 기능—의문어기조사와 지속상표지에 대해 재고찰 한 뒤, “呢”의 의미범주 및 어법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呢”의 의문기능에 대한 재고

“呢”의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평서문뿐만 아니라 의문문에도 자주 출현한다.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그가 진술어기이외에 의문어기도 나타내는 조사라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중국어에서 의문기능을 담당하는 “吗”와 “吧”의 공통특징을 개괄한 뒤, 그들을 다시 “呢”가 의문문에 출현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과 비교하여 그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음을 밝혔다. 이는 “呢”가 의문어기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대목이다. 사실, 증거성 표지는 평서문이든 의문문이든 상관없이 모두 출현가능하다. 증거성 표지 “的”의 분포양상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 둘째. “呢”의 지속상 기능에 대한 재고

“呢”는 “正”, “正在”, “在(那里)”, “着”와 같이 진행, 지속을 나타내는 어

법단위와 자주 연용된다. 이를 근거로 그가 지속상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呢”가 정말로 지속상을 나타내는 상표지라면 진행, 지속을 나타내는 어떤 통사환경에서도 다 출현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용례를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본고는 이를 통해 그가 지속상표지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셋째, “呢”의 의미범주 및 어법의미

마지막으로 “呢”의 의미범주 및 어법의미를 재정의하였다. 먼저 조합 층차를 근거해 현대 중국어에서 다수 존재하는 문말조사들의 의미범주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상 표시>증거성표시(광의적 관점)>의문 혹은 명령(청유) 표시>화자의 태도와 감정표시

“呢”의 의문어기조사와 지속상표지에 대한 부정과 “哪(哪)”의 존재를 통해서 “呢”가 상기된 의미범주 중 증거성 범주에 해당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呢”가 문장 속에서 주로 발화된 내용에 대한 화자의 강한 확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的”와 마찬가지로 증거성 정도가 높은 확신성 표지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비록 이 둘의 의미기능이 같긴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 기발생된 사건이나 발생중인 사건에 있어서는 각자의 담당영역이 따로 있고, 미발생된 사건에 있어서는 각자가 나타내는 확신의 객관성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현대중국어에서는 “呢”와 “的”가 상호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면서 ‘확신’이라는 인식범주를 완성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증거성’이라는 새로운 인식범주를 이용해 “呢”의 의미범주 및 어법의미를 고찰한 것은 하나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본고의 주연구대상이 “呢”의 기본적인 의미를 재고찰하는 것이어서 “呢”가 증거성 표지로서 나타나는 통사 및 담화상의 특징

과 공시평면상에 또 다른 변이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었다. 이는 다음 연구에서 다시 밝히도록 하겠다.

### <References>

1. Chen Ying. *A Study on the Category of Evidentiality in Modern Chinese*. Beijing : China Social Sciences Press, 2009.
2. Ding Shengshu. *Modern Chinese grammar*. Beijing: commercial press, 2002.
3. Hu Bingzhong. “Two questions about “ne””. *Language Teaching and Linguistic Studies* 2, (1989).
4. Hu Mingyang. “Modal particle and Interjection of the Beijing dialect (2)”. *Studies of The Chinese Language* 6, (1981).
5. Jin Lixin. “On “ne” in interrogative sentences”. *Language Teaching and Linguistic Studies* 4, (1996).
6. Lee, Hyejung. “The Study On Synchronic Grammaticalization of ‘de’ in the Structure of Word ‘d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70, (2015).
7. Li Ne, An Shandi, Zhang Bojiang. “The Argument of Modal Particle ‘de’ from the Perspective of Discourse”. *Studies of The Chinese Language* 2, (1998).
8. Liu Yuehua, Pan Wenyu, Gu Wei. *Practical modern Chinese grammar*. Beijing : commercial press, 2001.
9. Lu, Jianming. “On the interrogative modal particles in modern Chinese”. *Studies of The Chinese Language* 5, (1984).
10. Lü ShuXiang. *eight hundred words of modern chinese language*. Beijing : commercial press, 1999.

11. \_\_\_\_\_. *Brief of Chinese Grammer*. Beijing : commercial press, 1990.
12. Palmer, Frank R. *Mood and Modalit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3. Peng Lizhen. *A Study of Modality in Modern Chinese*. Shanghai: Fudan University, 2005.
14. Qi Huyang. *Modal Particle and Mood System*. Hefei: Anhui Education Press, 2002.
15. Shao Jingmin. "The role of modal word "ne" in interrogative sentences". *Studies of The Chinese Language* 3, (1989).
16. Shi Jinsheng. "The Function of Evidentiality "ne" and Its Grammatization". *Grammar research and exploration* 15, (2010).
17. Song, Jaemog. "Epistemic Modality and Evidentiality". *The Associations for Korean Linguistics* 44, (2009).
18. Xiong Zhongru. "The meaning of "ne" in interrogative sentences". *Journal of Anhui Normal University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s)* 1, (1999).
19. Zhang Bojiang. "The grammatical expression of cognition". *Linguistics Abroad* 2, (1997).
20. \_\_\_\_\_. "Comment on the function of interrogative sentence". *Studies of The Chinese Language* 2, (1997).
21. Zhao Yuanren. *Grammar of Spoken Chinese*. Beijing : commercial press, 2005.
22. Zhu Dexi. *Grammar Notes*. Beijing : commercial press, 1982.

< 참고문헌 >

1. 陈颖, 《现代汉语传信范畴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9.
2. 丁声树, 《现代汉语语法讲话》, 北京: 商务印书馆, 2002.
3. 胡炳忠, 〈有关“呢”的两个问题〉, 《语言教学与研究》 2, 1989.
4. 胡明扬, 〈北京话的语气助词和叹词(下)〉, 《中国语文》 6, 1981.
5. 金立鑫, 〈关于疑问句中的“呢”〉, 《语言教学与研究》 4, 1996.
6. 李惠贞, 〈的字结构中“的”的共时语法化研究〉, 《中国语文学》 70, 2015.
7. 李讷、安珊笛、张伯江, 〈从话语角度论证语气词“的”〉, 《中国语文》, 1998.
8. 刘月华、潘文娉、故鞞, 《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2001.
9. 陆俭明, 〈关于现代汉语里的疑问语气词〉, 《中国语文》 5, 1984.
10.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1999.
11. \_\_\_\_\_, 《中国语法要略》, 北京: 商务印书馆, 1990.
12. 帕莫, 《语气·情态》, 伦敦: 剑桥大学出版社, 2001.
13. 彭利贞, 《现代汉语情态研究》, 上海: 复旦大学, 2005.
14. 齐沪扬, 《语气词与语气系统》,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15. 邵敬敏, 〈语气词“呢”在疑问句中的作用〉, 《中国语文》 3, 1989.
16. 史金生, 〈传信语气词“呢”的功能及其语法化机制〉, 《语法研究和探索(十五)》, 2010.
17. 宋在睦, 〈认知情态和传信性〉, 《韩国语学会》 44, 2009. 0
18. 熊仲儒, 〈“呢”在疑问句中的意义〉, 《安徽师范大学学报》 1, 1999.
19. 张伯江, 〈认识观的语法表现〉, 《国外语言学》 2, 1997.
20. \_\_\_\_\_, 〈疑问句功能琐议〉, 《中国语文》 2, 1997.
21. 赵元任, 《汉语口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2005.
22. 朱德熙,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1982.

###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existing viewpoint of the Sentence-Final Particle “ne” and examines its inherent meaning.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Ne” has been generally regarded as a Interrogative particle. It is true that “ne” often appears in interrogative sentences, but it does not mean that “ne” is responsible for questioning function. Actually the interrogative pronoun in a sentence or the interrogative structure of sentence itself paly the questioning function. Therefore, “ne” can not be a interrogative modal particle.

Some scholars have also argued that “ne” is a continuous mark of continuity. It is true that “ne” often associates with words such as “zhengzai”, “zai”, “zhe”, etc, but it can not appear in all sentences that indicate continuation. Therefore, it can not be called a continuous mark.

In modern Chinese, there are a lot of sentence-final particles, and they are divided into four meaning categories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level: Aspect marker> Modality marker> Interrogative or imperative marker> speaker's attitude and emotion marker. Among them, “ne” represents a strong conviction of the speaker. Therefore, it belongs to Evidentiality and can be named as a certainty marker.

Key Words : 呢(Ne), 문말조사(Sentence-Final Particle), 증거성(Evidentiality),  
확신성 표지(Certainty Marker)